



“美-이란 휴전 논의”... 트럼프는 공격 또 유예

李 “무인기 긴장 유발 북측에 유감” 첫 표명

北 “김정은, 대범한 자세라고 평가”

파키스탄, ‘휴전 뒤 종전협상’ 안 전달
휴전기간 “15~20일” “45일” 갈려
일각 “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부정적”

트럼프, 예고보다 통첩 하루 더 연장
“지상군 투입 배제하지 않아” 압박도



쉬지 않는다더니 골프 친 트럼프 노벨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부활절 점 일요일인 5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본인 소유의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을 다녀온 뒤 백악관으로 복귀하고 있다. 그는 골프장에서 약 2시간을 보냈는데, 하루 전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이 X에 “부활절 연휴에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쓴 것과 대조적이다. 6일 로이터통신 등은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등의 중재를 통해 먼저 휴전을 한 후 종전 협상의 세부 사안을 논의하는 ‘2단계 휴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AP 뉴스

미국과 이란이 ‘선(先) 휴전, 후(後) 종전 협상’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중재안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정치매체 엑시오스도 전날 양측이 이런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2월 28일 발발한 이번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부담이 커지자 양측 모두 일단 휴전을 통해 숨 고르기에 나서고, 종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해 온 파키스탄은 양측이 적대 행위를 일단 종식한 후 종전을 비롯한 포괄적인 최종 협의를 모색한다는 2단계 협상 계획안을 미국과 이란에 모두 전달했다.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 스티브 윌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교장관과 거듭 접촉했다는 것이다. 1단계 휴전 기간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15~20일, 엑시오스와 AP통신은 45일을 점쳤다.

다만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에 대한 양측 이견이 커 실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가운데 노벨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발선소 등 이란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을 미 동부 시간 기준 6일에서 7일 오후 8시(한국

시간 8일 오전 9시)로 하루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웰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선 “화요일(7일) 저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어떤(이란) 발전소도 남지 않을 것이고, 교량 역시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앞서 같은 날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이란을 향해 “이 미친 자식들아, 당장 그 빌어먹을 해협을 열라. 안 그러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욕설도 퍼부었다.

또 의회매체 더힐 인터뷰에선 ‘지상군의 이란 투입을 배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해 합의 발발 시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유예 시한 종료로 앞두고 하루를 더 연장한 건 최대한 협상 및 합의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온다. 그간 군사시설 공격에 주력했던 미국이 이란의 산업·통신·행정 등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발전소 공격에 나설 경우 발생

할 후폭풍을 감안한 것일 수도 있다. 이란 민간인 피해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국제법 위반 논란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걸프국 민간 인프라 등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경우 우방국들의 피해가 커지고, 전쟁 역시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 워싱턴=신진우 niceshin@donga.com / 파리=유근형 특파원 ▶A2·3면에 관련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에 공개 유감 표명을 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길 바란다”면서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북한에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무인기 사건은 30대 대학원생 A 씨 등 3명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사건으로 북한이 1월 비난 성명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꾸러진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1일 A 씨 등과 접촉해 무인기 침투를 도운 국가정보원 직원,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송치한 뒤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오후 담화를 내고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정다감하고 스포츠맨 정신을 발휘한 처사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A5면에 관련기사

당정, 홍해에 유조선 5척 투입해 원유 확보 추진

(사우디 안부항)

호르무즈 막힌 상황서 대안 모색
사우디-오만-알제리에 특사 파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홍해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안부항에 유조선 5척을 투입해 중동 원유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홍해 루트에 대한 운항 자체 권고를 완화하면서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회의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 서안 홍해와 접한 안부항 등에 한국 국적 유조선 5척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 직

후 운항 자체 권고를 내렸던 안부항에 대해 일부 유조선의 통항을 허용하기로 한 것. 안부항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치는 홍해 루트는 이란이 장악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중동 원유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홍해 루트로 원유를 조달할 수 있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를 보내 원유 확보를 위한 외교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대체 물량을 확보해 선적한다면 국내에서 바로 정부 비축유를 민간에 먼저 공급하고,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스와프(맞교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홍해 루트에 대해 “위험을 조금씩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회 수입할 루트가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대한민국 원유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국가나 국민에게 위협이 너무 크다”며 “100% 안전을 위해 조금 위험이 있는 것도 다 막고 금지하면 국내 원유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호르무즈 해협처럼 봉쇄하기엔 전력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 기자 ▶A4면에 관련기사

산업용 전기료 부담 덜 태양광, 모험자본이 ‘햇빛’

성장의 엔진, 혁신금융 <2>

지난달 25일 오후 경북 구미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1공장 야외 주차장. 7200㎡ 규모의 주차장을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덮고 있다. 15도 각도로 하늘을 향한 패널들은 태양 빛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차량 위에 그늘막을 만들 어줘 여름에는 차를 뜨겁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는 전기차 타이어 등에 쓰이는 슈퍼 섬유 ‘아라미드’ 공정에 투입된다. 주차장뿐 아니라 공장용지 1만4400㎡에 들어선 3405개의 패널은 태양광 신생기업 ‘해준’이 설치했다. 해준은 자체 보유한 인공위성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최적의 설비 규모를 산출했다. 공장의 실제 전력 소비 패

턴과 땅 경사도, 옥상 면적, 구미 평균 일조량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다. 이를 통해 공장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군더더기 없는 설비 투자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비를 줄이는 기업들이 있다.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혁신 금융’이 기업의 원가 절감과 탈탄소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기업뿐 아니라 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기업, 문서 관리 스타트업 등 기업의 생산비를 아껴주는 신생기업들이 모험자본의 힘으로 크고 있다. 특별취재팀 ▶A8면에 관련기사

2026년 전국민 대상 선착순으로 株式을 公募합니다

AI 특이점에 가장 특화된 학습모델(Core Deep Learning)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Pumasy AI 에서 주식을 공모합니다.

공모 개요

- 발행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푸마시에이아이
-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3월 4일(수)
- 모집 증권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주
- 예상 가격 : 15,000원
- 청약 기간 : 2026년 4월 1일(수) ~ 4월 10일(금)
- 환불 및 주금 납입 기일 : 2026년 4월 14일(화)
- 청약금 납입 계좌 : 국민은행 001590-17-592367 (주)푸마시에이아이
※ 청약금 입금 전 반드시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청약 관련 사항]
- 청약방법 : 당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pumasy.com) 신청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용보장에 관한 법에 의한 실명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청약 증여금 : 청약 금액의 100%로 함
※ 청약 증여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되며 이자는 없음
청약 수량 : 1인당 최소 청약 수량은 200주, 최대 청약 가능 수량은 10,000주(청약 단위는 10주)
청약 취급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비201-122호 (주)푸마시에이아이 경영지원팀 전화: 02-2055-1152
• 관련 공시 서류는 금융감독원 사이트(www.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공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 및 환불 관련 사항]
- 배정 방법 : 초과 청약 시 청약증거금 입금 선착순으로 배정함
※ 공모 후 청약 주식이 공모 주식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증거금 입금 선착순에 따라 배정이 되며 최후 순위 배정자의 경우 청약 주식이 적은 수의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배정 공고 및 초과 청약금 환불 통지 : 2026년 4월 14일(화)
• 환불 및 주금 납입 기일 : 2026년 4월 14일(화)
※ 주식청약금 및 초과 청약금 환불 등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7조 3의 2조를 반영하여 당사는 한국증권금융회와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하여 반환 전까지 초과 청약금 인출 목적 외의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 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계에서 청약자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